

# 자체 추진해야 할 직원 보수체계까지 외주라니?

###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추진... 정호윤 도의원, 전북테크노파크 방만 운용 질타

전북테크노파크가 자체 추진해야 할 직원 보수체계까지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추진하는 등 기관의 방만한 운용실태가 전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호윤 의원(전주 1)은 10일,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과 방만한 조직 확대개편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직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에 외부에 용역을 발주했다. 이외는 별도



로 테크노파크는 올해 초 조직 운영과 경영 관련 용역 2건을 9월에 맡긴 보수체계 개선 용역기관과 같은 기관에 이미 맡긴 상태였다.

올해만 기관 내부 경영과 운용 관련 용역 3건은 같은 용역기관에 모두 맡긴 셈이다.

정 의원은 "조직 내부 직원의 보수체계를 산정하는 일은 내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인데도 외부 용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질타했다.

테크노파크는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건의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건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방만한 기관 운

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도의회 행감에서 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고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서단위의 통합을 제시했지만 테크노파크는 오히려 올해 1개 팀 신설을 단행했다.

최근 테크노파크는 전북도 특별감사에서 부적절한 보수체계 운영과 이사회 운영,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인사 소홀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전북도의 특별감사에서 방만한 기관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테크노파크는 오히려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외부 지적과 경고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강한 공감·소통 능력 청년이 강한 도당으로”

### 이정하 민주 청년위 대변인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출마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정하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공감·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청년이 강한 민주당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중앙을 잇는 참여형 정치로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장 발판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평소 청년당원들이 직접 전북의 비전을 논의하고 반영될 수 있는 소통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내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합된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눈팔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왔고, 또 지역에서 청년활동에 앞장서 왔다”며 전북도당의 청년당원을 대변하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북 청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시·군 청년축제, 워크숍 등의 소통프로그램 추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행정 공조 강화 ▲전북 청년정치학교 개설을 통한 청년정치인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정하 후보는 청년정책 연구소 부소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유호상 기자



반박 기자회견 연 최인규 고창군의회장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가 밝힌 27건의 제명 사유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8월 집중호우시 ‘무대책’ 일관”

### 이정린 도의원,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제구실 못해”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 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제377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강하게 질타했다.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호우피해 발생시 비상 2단계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 대책본부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실무반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제시된 실무반 편성기준이 비상 1, 2, 3단계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에는 비상 2단계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도에서는 매뉴얼 상에 비상 3단계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동안 회피해왔으며, 비상 3단계 격상 등 적극적인 대처도 미흡했다.

만약 지난 8월 조례대로 비상 2단계가 발령된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무반원으로 편성돼 도 대책본부에 근무를 했다면, 금번과 같은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유호상 기자

## “묘포장 조성에 남생이 구입 사유 납득 어려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은 10일 2020년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부교육감 상대 정책질의에서 김재 생생명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에서 법정보호종인 남생이 7마리를 사육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묘포장은 말 그대로 묘목을 기르는 곳이라 이해된다면서

“입원과 산란자원을 관련해 농업계고 학생들에게 묘포장을 조성해 교육과정 이 운영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생이를 구입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남생이 사육이 농업계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생태환경과 산란자원 교육 등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본인이 남생이를 권유했다고 답했다.

한편, 남생이는 마리당 최고 33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이원택 의원 민생극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보다 정책국감이라는 국회 본래 역할에 충실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선정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 10인으로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가, 어가, 임가의 현안 문제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현장을 반영한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호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북 방문... 도지사와 주먹인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도청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전북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 “위원회 위원 구성, 가급적 성별 균형 맞춰야”

#### 농산경위, 전북신보·테크노파크 등 찾아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0일 전북신보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전북신보보증재단 및 전북테크노파크 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신보보증재단에서 운용 중인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재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여성위원 위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무한 실정임을 질타하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가급적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올해 11월 3개 지점 개설 등에 따라 정인증가가 나타나면서 조직 운용과 인원

배치 등에 있어 급진적인 측면이 많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작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조직의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 확대에 따른 방만한 기관 운영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증수요가 급증해 발생하는 사고는 일면 이해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정상화율이 매우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보증사고 발생 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정상화율을 높일 수 있는 사고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현재 고유업무인 보증업무 증가로 인력 부족난을 호소하면서도 새롭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계획하는 것

은 전형적인 기관 몸집불리기다”며 “과도한 운영비 예산 증가, 타 기관과 사업종목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예산과 회계처리가 모두 종료된 2019년도 손익계산서와 예산집행 자료를 비교해보면 재보충료, 인건비, 경비 등 재반비용이 서로 불일치함을 문제가 있다”며 손익계산서와 수지지출 예산의 계산 방식에서 오는 금액 차이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수혜업체 가운데 전북신보보증재단이 추가로 보증한 곳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며 올해는 특수상황에 따라 신용 직접조사 생략 보증이 급증했는데 향후 보증사고 관리 및 직접조사 생략 남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정책 연구 기능 분리 문제점 지적

### 환복위, 행감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0일 위원회 소관 집행부 사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구 등을 통해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기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10일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11일에는 환경복지국을, 12일에는 복지여성보건국과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을,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새만금해양수산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첫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성정책 연구기능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과 각 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연찬회 및 간담회 추진을 통해 의원들 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가졌다.

이명연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소속 의원들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최근 2년 도내 성범죄 사례 17건”

### 행자위, 감사관 소관 행감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0일,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전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산재한 위법·부당한 관행을 철폐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도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감사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재 부위원장(전주4)은 2018~2019년 2년간 시·군 포함 도내 성범죄 사례가 17건이나 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청이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등급(2등급)을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는 14개 시·군이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감사 수행 시 반부패 및 청렴도가 떨어지는 기관들을 철저히 점검해 도내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했다.

## “의원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운영위, 의회사무처 소관 행감서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7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분회에서는 수어(수화언어)가 실시되지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수어 실시”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날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상임위원회별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의회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에서도 사회적 약자 등을 대변하는 뉴스가 보도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이 의회 소식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의회뿐만 아니라 도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될 수 있게 하고, 배부처도 현재보다 더 다양화하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사업이 중단 중인데, 비대면 운영방안과 국제교류 시행시 관심 있는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